산업통상자원부	보 도 자 료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0. 18.(화) 11:00 < 10.19.(수) 조간 >	배포 일시	2022. 10. 18.(화)
담당 부서	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	책임자	과 장 황윤길 (044-203-3980)
		담당자	사무관 최재영 (044-203-3982)

산업부, 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」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

-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수준의 업계 수용성 논의, 전기안전과 충전설비 보급 확대 균형을 맞춘 제도개선안 도출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이창양, 이하 산업부)는 10.18(화), 서울 AC메리어트호텔에서 **전기차**(테슬라)·**충전시설 제조업체**(대영채비(주), ㈜이카플러그 등), **학계**(서울대), **관련 협회**(전기공사협회, 전기기술인협회, 대한전기협회) 국표원 등 관련 업체·기관과 함께,

○ **「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」 제도개선 방안** 마련에 앞서,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**간담회를 개최**하였다.

《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관련 간담회 개요 》

▶ **(일시/장소)** `22. 10. 18(화) 14:00 ~ 15:30 / 서울 AC메리어트호텔

▶ **(참 석 자)**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·에너지안전과장, 제조업체, 유관기관 등 20명

▶ **(주요내용)**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, 침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논의 및 산업계 의견수렴

□ 전기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, 충전시설 보급확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**전기차 충전 중 위험성**이 높아지고 있으며, 특히, 전기차 충전시설은 **국민생활 밀접장소에 설치**되어 **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파급 효과**가 매우 크다.

○ 이번 간담회는 **국민안전 위협은 물론, 산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**가 높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**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안전관리 방안*을 논의**하고자 마련되었다.

*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상시 전기안전관리 체계 도입방안 및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예방, 방수·방진 안전기준, 급속충전시설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

□ **김선기 수소경제정책관**은 모두 발언에서 “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**전기차 충전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으며**,

○ 최근 태풍 등 집중호우로 인해 **충전시설 침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**되고 있으므로, **제조부터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**할 계획이다.” 라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“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조업체 등 **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 업계 수용성을 반영**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,

○ **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활성화와 관련한 안전 산업계의 성장·발전을 적극 지원**할 것이다.” 라고 말했다.

□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**향후 충전시설 실태점검,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등**을 통해 **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안전간 균형을 맞춘 합리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**할 계획이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「전기차 충전설비」 안전관리 제도개선 업계 간담회

